



‘투르 드 코리아’ 광주 끝인 ‘투르 드 코리아 2012’ 제 2구간(부여~광주)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이 23일 광주 서구 차평동 상무시민공원에 마련된 끝인지점에 들어오고 있다. 미국의 칸들라리오 알렉산더(OPT)가 4시간 41분 55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벨로루 저지’의 주인공이 됐다. 22일 시작된 대회는 전국 10개 거점도시를 거쳐 오는 29일 여주에서 막을 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체전 개막

구례서 27일까지 열전

‘200만 도민의 체육한마당’ 제51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24일 열전에 돌입한다.

오는 27일까지 구례에서 계속되는 전남체전에는 22개 시군 622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범경기(여자씨름, 길거리 농구) 포함 총 22개 종목에서 승부를 벌인다.

쌍둥이, 부부, 전·현직 국가대표 등 이색 선수들이 눈길을 끈다.

2010년 전국소년체전 공기권총 남중부 개인전과 여중부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이란성 쌍둥이’ 고은석·은이 장성대표로 나서고, 김용재·용선(여수·복싱), 박영모·영진(담양·검도), 서재근·재일(구례·태권도), 하종용·종학(영암·유도), 이정렬·정일(신안·검도) 등 쌍둥이들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정미순·미자(함평·검도) 자매와 박준호·성호(고흥·복싱) 형제, 김용기 전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부인 고점례씨와 함께 담양 정구대표로 나서는 등 가족집들도 대거 참가한다.

여수 김순기씨는 지난 73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정구종목에 출전하면서 체전의 단골 손님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와 최고령 선수는 신안 육상 유혜정(15)양과 함평 궁도 지홍상(77)씨다.

하남시 곡성군수(57)와 황호을 전 전남역도연맹회장(66)도 곡성과 강진을 대표해 정구 종목에 도전한다.

광양 최복음을 필두로 박영민·김광욱·황동준 등 국가대표 불린 선수들의 대결도 볼거리다. 검도 국가대표 김완수도 무안 대표로 참가하고, 육상 대표 박주영도 5000m 단축 마라톤에서 신안에 금메달을 안겨줄 전망이다.

한편 대회 개회식은 24일 오후 5시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처음으로 공중파(광주MBC)에서 생중계된다. 25일 오후 7시에는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선수단 장기자랑과 인기 가수 공연 등 선수단 친목 도모를 위한 시군 화합 한마당이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망대

마운드 별들의 전쟁

오늘 무등야구장 KIA 윤석민·한화 박찬호 맞대결

25일 김진우·류현진 ‘괴물 싸움’

KIA, 주말엔 두산과 원정 3연전



KIA 윤석민

무등경기장 마운드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KIA 타이거즈가 24일부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와 주중 3연전을 벌인다.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을 갖는다.

주중 3연전에는 프로야구 우완 에이스 윤석민(KIA)과 좌완 에이스 류현진(한화), ‘빅리거’ 서재용(KIA)과 박찬호(한화) 그리고 ‘풍운아’ 김진우(KIA)가 총출동해 마운드 전쟁을 벌인다.

24일에는 ‘투수 4관왕’ 윤석민의 파워와 ‘메이저리그 124승’에 빛나는 박찬호의 관록이 격돌한다. 제2의 퍼펙트 게임이다. 지난해 투수 4관왕에 오른 윤석민은 올 시즌에도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이어가며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로 자리하고 있다. 박찬호는 다른 설명이 필요없는 한국야구의 전설. 전설의 귀환과 함께 두 특급 선수의 맞대결이 현실이 됐다.

윤석민은 올 시즌 두 경기에 등판해 0.53의 방어율로 25개의 탈삼진을 장식하며 고공행진중이다. 박찬호는 두 차례 출격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끊으며 3.55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상으로는 윤석민이 앞서 있지만 박찬호는 시범 경기의 부진을 뒤로한 관록투로 ‘역시 박찬호’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빅리거에 발자국을 남기고 온 선배 박찬호와 빅리거를 노리고 있는 후배 윤석민의 공 하나하나에 무등경기장이 술렁일 전망이다.

박찬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25일에는 프로 데뷔와 함께 마운드를 들쭉이게 했던 김진우와 류현진의 ‘괴물 싸움’이 예상된다.

‘폭포수 커브’를 앞세운 김진우는 2002년 완봉승 포함 12승과 함께 177개의 삼진을 뽑아내며 신인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다. ‘특급 체인지업’의 류현진은 2006년 18승을 신고



KIA 김진우



한화 류현진

하면서 김진우가 가지고 있던 신인 최다 탈삼진 기록을 204개로 늘려냈다.

이후 둘의 행보는 달랐다. 류현진은 ‘괴물’ 피칭으로 국민 에이스로 우뚝 섰지만 김진우는 방황의 시간을 보내며 제자리 걸음을 했다. 지난 시즌 윤석민에 밀려 정상을 내뿜던 류현진과 돌아온 김진우가 ‘괴물투’로 명예회복을 노린다.

치열한 마운드 대결이 예고되지만 승리의 향방은 타자들에게 몰아야 한다. 극심한 타격 부진이 양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화와 KIA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3.1점과 3.6점으로 뒤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류현진은 9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지 못하는 등 세 경기에서 1.17의 방어율을 남기고도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8이닝 1실점으로 스타트를 끊었던 윤석민도 1실점 완투 끝에 겨우 승리투수가 됐다.

KIA는 휴식일이던 23일 특타를 진행하면서 화력 점화에 공을 들였다. 재활을 끝낸 김상훈과 김주형도 불려 타선 재정비를 위한 점검을 했다. 김상훈은 손영민과 함께 이날 엔트리에 등록됐다.

집중력 잃은 타선의 움직임에 따라 마운드 별들의 표정이 엇갈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화 박찬호

‘F1 황제’ 베텔 우승

바레인 그랑프리

세바스티안 베텔(독일·레드불)이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에서 올 시즌 첫 우승을 거뒀다. 베텔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바레인 사키르에서 열린 2012시즌 4라운드 그랑프리에서 5.412km의 서킷 57바퀴(총길이 308.238km)를 1위로 끝냈다.

지난해 종합순위에서 1위를 달린 베텔은 올 시즌 첫 대회였던 호주 그랑프리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로 다시 정상 계도에 오른 베텔은 올 시즌 랭킹 포인트 53으로 1위를 기록, 2위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에 4점 앞섰다. 키미 라이코넨(핀란드·로터스)은 베텔보다 3.3초 늦게 들어와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라이코넨의 팀 동료 로만 그로장(스위스)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